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확대 운영

인천시, 1일부터 1천여 개소로 지하철역에 집화시설도 설치 배송 단가 낮춰 당일배송 실현

인천시가 소규모 택배 물량으로 당일출고와 당일배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배송비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를 1일부터 확대 운영해 참여업체를 560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한다. 온라인 시장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물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중·대형 기업들은 택배사와 배

송단가를 낮게 계약할 수 있지만 출고 물량이 적은 소상공인들은 배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조차 어렵다.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고,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당일배송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공모’에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 사업’을 제안해 선정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7월 말 현재 133개이던 계약업체가 12월 말에는 560개소로 늘어났고 7월 한 달간 585건이던 배송물량은 12월 한 달간 7807건으로 늘어 소상공인들의 참여 증가와 사업 타당성을 확인했다.

이 사업은 개별 소상공인들이 출고하는 소규모 물량을 하나로 묶어 택배사와 일괄로 단가 계약을 체결해 배송 단가를 낮췄고 단 1개의 물량을 출고하는 소상공인들도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물류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요일별 물동량을 고려하는 등 집화 시스템을 개선해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기 불가능에 가깝던 당일배송 역시 가능케 했다. 시중 일반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평균, 당일배송은 4400원, 일반배송은 3520원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인천시의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면 인천(강화·옹진 제외)·서울·부천 지역 당일배송은 3500원, 전국 일반배송과 신선배송은 각각 2500원과 35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시장 평균 배송료 대비 약 25%가 저렴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올해 참가업체를 지난해 말 기준 560개에서 1000개소로 확대함과 동시에 상반기 중 저렴한 친환경 택배 상자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인천 지하철 역사를 활용한 집화 및 5시간 동네 배송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김윤수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공동물류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물류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해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전했다. 안중삼 기자

안테나

‘인천 여성리더 아카데미’ 위탁 기관 모집



인천시가 역량 있는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인천 여성리더 아카데미’ 민간위탁 기관을 모집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기관은 협약체결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운영을 맡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위치를 인천시에 두고 여성리더 교육과정(주요 위탁사무)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및 사업 수행능력과 공신력을 갖춘 대학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의 현주소, 여성 인사와 지역 성장을 위한 영향력, 양성 평등한 사회구현의 필요성 등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테마별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안중삼 기자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5건 조례안 처리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 안전 본회의서 의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일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5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인천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이오상 의원)’, ‘인천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인천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인천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등 의원발의의 조례안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신중석 위원장은 “올해 첫 임시회를 통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일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5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심의회한 조례안이 인천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한편 교육위에서 심사한 안전은 5일에 개

최될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중삼 기자

인천시, 미래 수산업 이끌 청·장년 지원

인천시 수산업기술지원센터가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해 경영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수산업경영인 지원사업은 미래의 수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어업기반 조성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올해는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15, 우수경영인 4명) 19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금으로는 어선 건조 및 구입, 양식장 부지 구입 같은 독립된 어업기반 마련과 시설 또는 장비구 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어업인후계자의 지원 자금은 개인 신용에 따라 최대 5억원(연리 1.5% 또는 변동금리)이고 우수경영인은 최대 2억원(연리 1%)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어업경영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어업인후계자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인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성 포함)로 어업에 종사한 경력 없거나 어업에 종사한 지 10년 이하일 때 가능하고 우수경영인은 만 60세 이하로 어업인 후계자 선정 이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지속해서 경영 중이거나 수산 신기술인 이면 신청할 수 있다. 안중삼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집중접종기간’ 운영

서구보건소, 설 명절 연휴 기간 전통시장 방문 적극 홍보 나서

서구가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맞아 해외 여행, 가족 모임, 감염취약시설 면회 등 접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한다. 서구보건소는 지난달 24일과 26일 지역 내 전통시장을 방문, 지역주민과 상인들에게 설 명절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독려하며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 강범석 구청장은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해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3월말까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 140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생후 6개월 이상 전 국민은 무료 접종 대상이고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우선 접종



서구보건소가 지난달 24일과 26일 지역 내 전통시장을 방문, 지역주민과 상인들에게 설 명절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독려하며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 (사진=서구)

대상자로는 65세 이상 연령층,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면역저하자 등이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용 기자

‘기후친화 보행공간’ 조성 방안 제안

인천연구원, 연구보고서 발표 “보행공간 가이드라인 있어야”

인천연구원이 지난해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개항장 기후친화 보행공간 계획 기법 시범 적용 및 효과 분석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시의 친환경 도시정착 및 시범사업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 공공공간 특히 보행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 적응 차원의 관련 기초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이 연구는 기후친화 보행공간 계획기법을 시범 적용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도시 미기후를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형 및 친환경 보행공간 계획 및 설계기법을 인천 개항장 내 중구청 일대와 1·8부두를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고, 계획적용에 따른 보행자 온열쾌적성 증진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대상지 현황분석 결과 개항장의 문제점은 △내한 1·8부두의 높은 표면온도로 인한 수변공간의 열저감효과 미비 △중구청

일대 도시열섬으로 인한 야외활동 저하 우려 △자유공원의 고립된 녹지축과 바람길 부재로 인한 온열쾌적성 저하 △취약한 보행환경으로 인한 보행자 열스트레스 증가 △기후재해 취약성 평가체계 미비 및 관련 계획과 시범사업 부족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인천 개항장 보행가로의 온열쾌적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간구상을 위한 4가지 기본방향이 제시됐다. △그린인프라 조성을 통한 녹지바람길 네트워크 구축 △녹색·보행친용지구 조성을 통한 도시열섬 저감 △내한 1·8부두 수변통경축 조성 △유휴부지를 활용한 쿨링 스팟 네트워크의 조성이다. 김유정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시를 대상으로 하는 향후 과제로 4계절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도시 미기후 심화 연구, 폭염 대응을 위한 온열쾌적성 및 열취약성 평가 제도개선 방안 연구, 스마트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한 기후환경 IoT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기후친화 보행공간 가이드라인 제작 및 시범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중삼 기자

인천시, 지난해 438개 감정평가법인 선정

인천시가 지난해 인천시와 산하 유관기관에서 발주한 324개 약 7조원 규모의 감정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438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다. 기존에는 사업 시행 기관에서 각각 수의계약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왔는데 임의로 법인을 선정하다 보니 특정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발주처의 입맛에 맞는 감정평가로 인해 가격평가의 불공정성의혹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감정평가법인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명시한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서는 일부 사업자들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 미만인 경우 감정평가 운영계획에 의해 참여 신청한 감정평가법인을 순서에 따라 순환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안중삼 기자

인천중기청,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가저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설 명절을 맞아 1일 간석자유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와 함께 30여 명이 참석했다. 120여 개 점포가 있는 간석자유시장은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간석오거리역)과 가까워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닭강정·떡·두부·과일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장보기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다양한 명절 물품을 구매했으며, 장보기 행사가 끝난 후에는 설 명절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 위해 평화의집에 방문해 구매한 물품을 기부하기도 했다. 한편 중소기업부는 설 명절을 계기로 지난 1.20부터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를 50만원 상향해, 모바일·충전식카드형의 경우 매일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안중삼 기자

‘함께하는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앞장

인천시, 지난해 지정 기탁금품 전년비 2.6배 증가... 92억원 지정 기탁자들과 간담회 진행

인천시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인천시자원봉사센터, 군·구 수탁기관 등을 통해 자발적 기탁금품 92억원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접수된 기탁금품 35억원에 비해 2.6배 증가한 것으로 인천시는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환경과 돌봄분야 등으로 확장된 기부활동으로

지난해 지정 기탁금품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1일 시청 장미홀에서 소외계층 가정 지원, 우수인재 육성,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내고장 하천살리기, 그린파트너 연합활동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 단체, 기업 지정 기탁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정복 시장과 지난해 자발적 지정기탁에 동참한 14명의 기부자(단체)들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인천시를 위해



유정복(왼쪽에서 네 번째) 시장이 1일 시청 장미홀에서 열린 2023년 인천시 지정기탁자 간담회에서 기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기후 위기 대응·교육·복지 등 우리 삶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지정 기탁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기탁자에 감사드립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함께하는 따뜻한 온기 나눔의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